



2017년 10월 15일(제845호) 연중 제2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비가 많이 오는 날, 운전하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자동차는 원을 그리며 돌게 됩니다. 바로 이때 주변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사고는 바퀴와 도로 사이가 온전히 밀착되지 않고 그사이에 끼어든 ‘비’라는 이물질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도로와 바퀴만이 존재해야 할 공간에 비라는 불청객이 끼어들면서 바퀴는 도로에 착지하지 못하고 결국 원하는 방향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와 차바퀴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물질의 개입은 언제나 우리를 차선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이 그 자리에 끼어든다면 신앙은 그 순간 공든 탑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를 혼인 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처음 초대받은 이들은 임금의 초대에 부응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려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진노한 임금은 고을 어귀에서 만나는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잔치에 불러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손님들, 그들은 임금의 명령으로 하인들에게 불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나무라며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고작 예복 하나 때문에?,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곳, 그 혼인 잔치에 함께 하고는 있지만, 진정 그곳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열정이 없다면 아무리 신명 나는 잔치라 해도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의 몸만, 신자로서의 의무감만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의 이 은총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초대받은 오늘의 이 귀중한 시간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이 기쁨의 잔치를 신명 나게 즐겨보도록 합시다.



이승남(스테파노) 신부
필승(육군 30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25,6-10ㄱ
- 회 답 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 시 필리 4,12-14.19-2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복 음 마태 22,1-14<또는 22,1-10>
- 영 성 제 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진리를 살다

미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제사이며 또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바친다고 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과 함께 우리 자신의 전생활(全生活)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을 위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며 바칠 때 우리의 제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물은 단순한 현금이나 미사에물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제물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찬미의 제사’라고 불렀으며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가르치듯이 우리가 미사 때 바치는 빵과 포도주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제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시하는 빵과 포도주와 결합할 때 비로소 그 빵과 포도주는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거룩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남김없이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 안에서 자기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그리스도의 자기 헌신을 배워 사는 일입니다.(참조. 에페 4.22-24)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숭배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면 자꾸만 좁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미사의 제사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사를 제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상숭배를 위한 제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를 지낼 때 예수께서 세우신 미사의 본 의미를 생각해야 하며 결코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씻어야 하겠습니다.

● 전구(轉求)

전구란 개인이나 공동체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하여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미사 중에 믿는 이들은 이미 보편지향기도에서 전구를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전구를 바치는 이유는 이 간청들은 전체 공동체와 성찬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깊은 내적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기도의 일반 규정인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신뢰하는 간청을 하나님께 향하지도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에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는 없다. 따라오는 간청이

미사의 제사성

없는 감사기도는 단지 하나의 의무를 해치운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생기게 할 수 있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구자로서 성부 곁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제는 항상 성부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감사기도 안에 있는 전구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전구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행하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이듯이 교회의 전구도 그리스도의 전구인 것입니다. 미사는 인류 구원의 제사이자 일치와 사랑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뢰의 마음으로 구원에 초대받은 교회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인 성녀들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와 저희 주교()와(과)….” 모든 산 이와 죽은 이를 함께 기억합니다.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제2양식)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제3양식) 유의할 것은 이때 주례 사제가 서품, 세례, 견진 등 예식 미사와 장례미사와 같이 죽은 이를 위해 마련된 별도의 기도문을 외지 않을 때는 개별적으로 받은 미사 지향자의 단체나 개인 이름을 거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그들을 거명하려면 보편 지향 기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 마침 영광송

감사기도 마지막에 바치는 영광송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를 마침 영광송이라 부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을 본받아 주요기도 끝에는 흔히 영광송을 바치곤 했습니다. 미사의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업적을 기념하고 재현하면서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송으로 시작하여 영광송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되어 성부께 영광을 드리는 형식의 이 영광송은 가장 오래된 영광송 형식의 하나입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영광송뿐 아니라 감사기도 전체에 동의하며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성대하게 환호합니다. 공동체가 외치는 ‘아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이 ‘아멘.’ 또한 가장 중요한 환호이자 노래입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별책』

복	음	록	상
---	---	---	---

- 배영필(베드로) 신부 / 예수회

포도나무를 보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즐기는 가치를 낸다.

가지는
즐기에서 받은
영양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임계서 부른
값을 해야 한다.



상화이야기

우르술라 성행



본 장면들은 군인들의 시녀들을 칼과 화살로 참혹하게 학살하고 있는 장면들과, 훈족 지휘관인 우르술라 성녀를 화살로 쏘아 순교시키는 장면이(오른쪽) 그려져 있다.



성녀의 순교 장면을 그린 그림 오른쪽에는 갑옷을 입고 팽팽하게 당긴 화살을 막 쏘려는 군인이 있는데, 성녀와 이 지휘관 사이에 서있는 장교로 보이는 이의 반짝이는 갑옷에는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군인들의 모습, 왼쪽의 우르술라와 오른쪽의 자신의 지휘관의 모습과 활과 화살까지 그려져 있다. 그 앞에 그려진 개는 충절을 상징한다.

<다음 주에 계속>

히스 맥링(1430-1494)

1489년 작, 폰합틀 87 X 33 X 91 cm

성 요한 병원, 벨기에 브뤼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8주일: 시제단

◆ 교구장 등장

- 주교회의 2017년 추계 정기총회
 때·곳: 10월 16일(월)-20일(금), CBCK

◆ 제50회 군인 주일 행사

- 때: 10월 14일(토)-15일(주일)
- 곳: 전국 일반 본당

◆ 교구장 신임시제 방문

- 한밭(32사단) 성당
 때: 10월 20일(금)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